주간 통일정세

2008-17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南정부 대북정책 비난(4/27, 김일성방송대학; 4/26, 통일신보;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27일 김일성방송대학은 두 편의 '문답실' 코너에서 '핵완전포기'론에 대해 "조선반도 핵문제의 발생 경위와 본질도 모르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며 핵문제는 "미국이 남조선(남한)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를 핵으로 위협해 산생된 것"이라고 주장,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절반짜리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비핵화"이며 "이것은 북남간의 문제가 아니라 조(북)미관계 문제이고 남조선까지 포함한 국제적 문제"라고 문답실은 보도
- 통일신보는 "'북핵포기 우선론'은 미국의 강경보수 세력이 공화국 압살을 추구하며 내놓았던 '선핵포기'를 그대로 모방한 것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대북 개방 주문에 대해선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문답실'은 주장하고 "6·15 이후... 북남사이 대화와 접촉, 내왕이 활성화"됐는데 "오히려 우리에 대한 봉쇄와 고립압살 책동"을 벌이는 것은 미국과 남한의 집권세력이라고 주장
- 통일신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한갓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하고 "북남 사이에는 이미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의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은 접촉과 대화, 협력의 통로들이 마련돼 있다"고 주장
- 통일신보는 "북남관계 문제,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연락사무소 같은 것이나 설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00년 6·15공동선언과 지난해 남북정상선언을 "이용하고 확대 발전시켜나가는 길이 곧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길이고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책"이라며 "연락사무소 설치라는 것은 그 어떤 새로운 제안도 아니고, 북남관계의 현실에도 전혀 맞지 않는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비난

양형섭, 김정일은 승리와 영광의 상징(4/26, 연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라며 전체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촉구

- 양 부위원장은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린 림춘추 전 국가 부주석 사망 20돌 중앙추모회 추모사를 통해 전체 주민들은 "항일혁명선열들의 수령(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의 모범을 따라 배워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을 높이 모시고 결사옹위하는 참다운 혁명전사,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를 지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한 본새(태도)로 선군혁명의 천만리 길을 걸어 나가는 순결한 인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
- 또 "오늘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이라며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부문 등 이른바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결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업, 경공업 부문에서 "혁명"을 일으켜 정권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보람찬 해, 기쁨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
- 추모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당과 군대, 국가 간부들이 다수 참가, 항일혁명 1세대인 림춘추 전 국가 부주석은 1960년 발행된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 등 많은 항일유격대 회상기를 남김으로써 북한 정권의 '혁명전통' 수립에 기여했으며, 1988년 4월 27일 76세로 사망

北,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합의 비난(4/26,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온라인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굴종적인 합의"라고 비난, 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통해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사까지 모조리 '조공보따리'에 담아 상전에게 섬겨 바치고 왔다"면서 "이 합의라는 것은 그 조공의 대가로 얻어낸 상전의 약속"이라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주한미군이 "민족분열과 조선반도 평화 파괴의 원흉"이라면서 "지금 이명박 일당이 떠드는 미군 철수의 동결 합의는 미군의 영구주둔 합의"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전쟁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언급

김정일, 인민군 창설 76주년 기념 화환 증정(4/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민군 창설 76주년을 맞아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이날 열사릉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일 내각 총리,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최태복·김기남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서기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등이 참석

- 김 위원장은 평양 만수대언덕에 있는 김일성 주석의 동상에도 꽃바구니를 전달

남북관계, 10·4선언 정신에서 출발 강조(4/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5일 "조·미 싱가포르 합의 이후 사태발전이 남측 보수집권 세력이 우려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상황으로 되어 나가는가 어떤가는 결국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북측과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 한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영을 받은 10·4(남북정상)선언의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통미봉남, 보수집권세력의 근심'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10·4선언에는 평화번영에 대한 민족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하면서, (동시에) 6자회담 합의 이행, 조선반도 비핵화와 같은 국제적인 관심사를 주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도가 명시돼 있다"면서 이렇게 언급
- 신문은 '우리 민족끼리'의 "민족자주 이념은 외부에 대하여 문을 닫아내고,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어긋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이 아니다"면서 "민족을 중시하고 세계 속에서 북과 남이 민족의 이익을 위한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
- 이어 신문은 "북측은 국제사회와의 연계, 조화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의해 부정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외세추종, 외세의존의 관점과 입장"이라고 부연

북TV, '비핵·개방.3000' 집중 비난(4/23,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국통일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을 참석시킨 좌담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 가운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내에 연간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올려주겠다'는 부분을 강도 높게 성토
- 4월 21일부터 시작돼 세번째를 맞은 이날 좌담회에서 진용부 책임연구원은 '국민소득 3000'의 재원에 대해 언급하며 "가관은 이명박과 그 패당들이 서방 나라들에서 돈을 빌려오고 (심)지어는 일본이 우리에게 물어주어야 할 과거청산 대가까지 저들이 먼저 받아서 그것을 보태서 그 무슨 대북지원자금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남한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후안무치한 협잡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미국의 식민지 예속경제나 가지고 있는 주제에 감히 그 누구의 국민소득 문제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가 꾸레미가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
- 대남연구기관인 조국통일연구원의 림재학 실장은 이날 좌담회에서 북핵 우선 포기론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의 발생 경위와 본질, 핵위협의 근원과 6자회담의 합의도 모르는 망발"이라며 "조선반도 비

핵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그 누구의 선핵포기에 대해서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저들 땅에 전개된 가증스러운 미국의 핵무기부터 먼저 철수시킬 용단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

- 조선중앙TV는 같은 주제의 좌담회를 21~22일 두 차례로 나눠 개최

○ 유명환 외교장관도 비난(4/22,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우리민족끼리'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4월 11일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상기시켜달라"고 말한 데 대해 "매국배족적인 망언"이라고 비난
- 이 매체는 '친미주구의 본색을 드러낸 망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의 집에 뛰어들었던 강도들의 죽음에 대해 '희생'이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며 "명색이 '외교'를 담당한 자라면 응당 민의를 대변해 미제의 죄행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

○ 안팎 시련 속 "우리식대로" 재강조(4/21, 노동신문)

- 노동신문 21일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0년전 제시했던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가자'는 구호를 새롭게 상기시키면서 "남의 식을 따르면 온갖 불행과 재난"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강조, 이 구호는 김 위원장이 1978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 협의회에서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연설을 통해 처음 제시한 것임.
-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을 소개하며 "우리 식은 곧 주체식이며 이보다 더 좋은 식은 없다"고 강조, 신문은 특히 "번영과 행복의 길이 자기 식을 고수하고 살리는 데 있다면, 온갖 불행과 재난은 남의 식을 따르는 데서부터 온다"며 "우리는 역사의 이 교훈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나. 경제 관련

○ 사회주의적 소유 고수·발전(4/27,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우리민족끼리'는 27일 "인민 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하자면 사회주의적 소유를 고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고수를 강조
- 우리민족끼리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지배하는 조건에서는 근로 인민대중이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 유린한다"며 시장경제의 폐해를 주장, 매체는 몰락한 사회주의국가의 예를 들어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경제분야에서 소유의 다양화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전 인민적 소유의 공장, 기업소들을 사유화했으며 농촌에서도 협동적 소유를 약화시키고 개인 소유를 늘렸다"면서 이렇게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경제생활 뿐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서 일대 혼란이 조성됐다"고 주장

- 이어 "사회주의적 소유를 고수한다는 것은 생산관계의 근로인민적, 집단적 성격을 튼튼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매체는 주장하고 "만일 사회주의적 소유가 그 본성에 어긋나게 개인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되면 그것은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적합한 경제관리 방법은 집단주의적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

노동신문, 식량위기 감자가 출로(4/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곡물가격 폭동 등 세계적인 식량위기 소식을 전하면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이 악화하고 있는 식량문제 해결의 출로를 감자 생산에서 찾고 있다고 자세히 소개
- 노동신문은 '감자 생산에 대한 높아가는 관심' 제목의 글에서 "세계적으로 식량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식량 재고량은 197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지구촌의 식량위기를 언급, 또 "국제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악화하는 식량형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감자라며 유엔이 올해를 '국제 감자의 해'로 정한 사실을 지적

美 금융침투 철저 배격(4/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미국이 이란 등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세계 제패 야망"의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은 '금융망을 통한 미국의 세계 제패야망 실현 책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최근 "금지된 핵능력 추구"와 "테러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이란의 주요 은행과 기업, 개인들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취한 것을 들어 이같이 주장
- 통신은 또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저들(미국)의 조종을 받는" 국제금융기구들을 통해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 제공시 언제나 미국식 시장경제체제 확산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내걸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차관 제공 등을 중단했다고 주장
- 통신은 이런 사례들은 "금융망을 통한 미국의 제재와 압력, 금융침투 책동에 각성있게 대하며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가를 심각한 교훈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힘.

北내각, 독립채산제·지방예산제 강화 촉구(4/23,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사설에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6차 회의에서 채택된 올해 예산은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계속 힘을 넣으면서...인민

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올 수 있게" 편성됐다며 이같이 강조, 또 신문은 "국가예산 수입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품의 질 제고 운동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어 국가에 들여놓아야 한다"면서 "우리식의 기업관리 방법인 독립채산제가 은(성과)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

- 지방예산제는 각 지방 행정기관들이 자체로 벌어 살림해 나가도록 한다는 취지로 1973년부터 시행해 온 예산제도임. 북한 내각은 2000년 지방예산 확보와 관련해 지방인민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예산제 규정'을 채택하기도 했음.
- 신문은 또 "경제지도 일꾼들은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 이용하여 생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제품을 하나 생산하여도 단위당 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사회 순소득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촉구, 이어 "올해 국가예산을 철저히 집행해 나가는 데서 재정은행 일꾼들이 맡은 몫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기관·기업소들에 대한 원(돈을 의미)에 의한 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 기관·기업소들이 재정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덧붙힘.
- 신문은 아울러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데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며 "국가예산은 국가의 법"이고 "그 누구도 마음대로 고치거나 어길 수 없으며 오직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고 강조

北, '비즈니스 스쿨' 매년 30명 경영 교육(4/23, 자유아시아방송; 연합)

- 북한 당국이 스위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에서 소규모의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하면서 북한 관리들에게 경영학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평양 비즈니스 스쿨엔 현재 북한 관리 30명이 등록해 한달에 사흘간씩 열리는 단기 세미나에 참석, 마케팅, 경영, 재무, 회계 등을 배우고 있다고 스위스연방 외교부 산하 스위스개발협력처(SDC)의 젤워거 평양사무소장이 설명
- 운영 2년째인 이 비즈니스 스쿨은 첫해에도 30명의 북한 관리를 교육했으며, SDC는 교수진으로 북한 교수 외에 홍콩, 스위스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도 초빙, SDC는 특히 이들 북한 관리들이 비즈니스 스쿨에서 배운 시장경제와 무역 실무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확인토록 4~10명으로 연수단을 구성,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 국가 등에 보내고 있다고 워거 소장은 밝힘.
- 스위스 SDC는 올해 580만 스위스프랑(약 57억원)의 대북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평양 비즈니스 스쿨 운영비를 포함한 개발협력 사업에 400만 스위스프랑을 집행할 계획

北, 원산청년발전소 2단계 공사 시작(4/23,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강원도 원산청년발전소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2단계 공사를 시작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北 내각회의, 식량·소비품 대책 논의(4/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은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식량과 인민소비품 해결방안을 비롯한 올해 2/4분기 경제계획 실행대책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김영일 총리를 비롯한 내각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1/4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정형총화(결산)와 2/4분기 계획 실행대책, 작년 국가예산집행 총화와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된 올해 국가예산 집행대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제계획 안건에 대한 보고는 곽범기 부총리가, 국가예산 안건에 대한 보고는 로두철 부총리가 각각 맡았다고 통신은 보도
- 회의에서는 2/4분기 경제계획과 관련,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결정적으로 부양하는 데 힘을 집중하기 위한 대책들과 식량·인민소비품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
- 또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철저히 수행해 인민경제의 기술개건(개선)을 적극 실현하는 문제, 중요 건설사업을 다그치며 도시와 농촌을 훌륭히 꾸리고 온 나라를 수림화·원림화 하는 문제, 전 부문단위들에서 계획·노동행정 규율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도 강조
- 올해 국가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집단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 경제관리와 재정관리를 실리가 나게 하는 문제, 경제·회계계산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지방예산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문제, 전 부문단위에서 재정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는 문제, 재정은행일꾼들이 높은 책임감을 갖고 예산자금을 제정된 항목과 계획범위 안에서 극력 아껴쓰도록 하며,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통신은 소개
- 이번 회의에는 내각 직속기관 책임 간부와 관리국장들, 도·시·군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들, 중요 공장·기업소 지배인들도 방청했다고 보도

北, 신발공장들에 원가절감 기술 보급(4/21, 조선신보)

- 북한 각 지역의 신발 생산공장들이 제조 원가를 낮추면서도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 도입에 분주하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생산원가를 낮추면서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담긴 90여건의 논문이 발표됐는데, 이 중 생고무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함흥 신발공장의 '쌍축스크류의 효과를 이용한 재생고

무의 재질과 그 운영'과 장화 사출량을 50%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과학원 조정기계연구소의 '전용처리장치를 이용한 장화사출기 조정체계 구성' 논문 등 30여편이 우수작으로 선정

○ **北, 세계 곡물가격 폭등에 우려(4/20,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0일 "세계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격히 뛰어 올라 커다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10일 발표된 한 국제 조사자료를 인용, "2006년 말 이래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평균 48% 인상됐다"고 보도
- 또 평양방송은 이날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에서 식량가격이 폭등했다며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인용, "현재 흰쌀 가격이 시에라리온에서는 3배,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카메룬 등 나라들에서는 50% 인상됐다고 한다"고 보도

다. 군사 관련

○ **노동신문, 南·美 덤비면 단호한 타격(4/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인민군 창설 76주년을 맞아 게재한 사설에서 남한과 미국을 거론해 "적들이 우리에게 덤벼든다면 우리 군대는 단호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강위력한 혁명 무장력에 의거하여 전진하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제목의 사설에서 "오늘 미제는 국제무대에서 공공연한 침략행위와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남조선 집권세력은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
- 이어 신문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조직.진행하고 나라의 군사적 위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전체 인민이 항일혁명 선열들이 물려준 총대를 틀어잡고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보위해야 한다"며 "전 사회적으로 군사를 중시하고 성실히 배우는 기풍을 확고히 세우며 다음 해에 맞이하게 되는 노농적위대 창건 50돌을 계기로 민간무력을 강화하는 데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

○ **김일철, 선제타격엔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4/24, 연합)**

-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24일 "인민군대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친미사대, 반북대결 행위와 군부 호전광들의 책동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으며 적들의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

- 김 인민무력부장은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북한군 창건 76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한나라당의 친미사대, 호전적인 보수집권세력은 '한미관계 우선론'이니, '북핵문제 완전해결'이니, '실용주의'니 하는 궤변을 내들고 6·15이후 북남 사이에 이룩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서 자주통일 시대의 흐름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오고 있으며 지어(심지어) 군부 우두머리들 속에서는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 폭언까지 공공연히 울려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
-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앞에서는 평화와 대화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우리를 압살할 흉계 밑에 남조선·일본과 3각 군사동맹관계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도발적인 무력증강과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

北, 인민군 창설 76주년 행사 잇달아(4/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인민군 창설 76주년(4.25)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잇달아 개최, 예비역들이 참가하는 "평양시 노병들의" 경축공연이 23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려 시와 합창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합창 '내 고향의 정든 집', 남성 5중창 '손풍금수 왔네', 여성중창 '우리 님 영웅되셨네' 등을 공연
- 또 북한군을 총괄 지휘하는 인민무력부는 23일 청사에서 북한 주재 각국 무관단을 초청해 연회를 개최, 각급 기관과 기업소에서는 군 창설일을 앞두고 사상교양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
- 금속공업성 리명학 국장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강령과 해설담화, 영화감상 모임을 통하여 깊이 새겨주고 있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무원들 속에서 사상교양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정무원들 속에서 발휘되고 있는 원군미풍을 적극 평가해주고 널리 소개 선전하고 있다"고 언급

라. 사회·문화 관련

김정일 관심속 평양 성화봉송(4/27, 중국국제방송)

- 류샤오밍(劉曉明) 평양주재 중국대사가 "김정일 총서기(노동당 총비서)의 관심하에 조선인민이 이번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에 동원됐다"며 "조선(북한)은 베이징 올림픽 성화의 평양 봉송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국제방송 인터넷판이 27일 보도
- 류 대사는 4월 26일 가진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또 "올림픽 성화가 평양에서 봉송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또 올림픽 성화가 조선반도(한반도) 남과 북에서 봉송되기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 남한을 떠나 28일 오전 0시40분 전용기 편으로 평양에 도착하는 성화의 평양 봉송행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 시작되며, 당일 오후 7시 전용기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이동

- **백두산 천지호반은 약용식물 '보고'(4/27,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백두산 천지 호반에는 한약재로 쓸 수 있는 식물이 100여종에 달한다고 노동신문이 보도

- **北어학잡지, 유모아를 생활화하자고 권장(2008년 1호, 문화어학습)**
  - 어학전문 계간지 '문화어 학습' 최근호(2008년 1호)가 '유모아는 언어생활의 보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유머의 장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주민들에게 언어생활에서 유머의 사용을 적극 권장
  - 잡지는 "사회가 발전하고 전진하며 물질문화 생활이 유족해질수록 웃음은 많아지고 유모아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진다"며 "유모아는 인간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런 저런 매듭을 푸는 데서 아주 좋은 보약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
  - 잡지는 유머 사용의 의의에 대해 ▲사회 전반에 "혁명적이며 낙천적인 문화정서 생활 기풍"을 채우고 ▲언어생활에서 환경과 정황, 조건에 맞게 임기응변적으로 말을 재치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인품을 높여주고 언어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것 등을 언급

- **北도서관, 비치 영어원전 닳을 정도 탐독(4/26,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영어교육을 위해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원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아시아재단의 에드워드 리드 한국지부장이 재단 소식지를 통해 전언
  -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리드 지부장은 최근 방북시 만났던 평양외국어대학교 총장의 말을 인용, "평양외국어대학교는 아시아재단이 기증한 책을 활용해 과학, 기술, 경제학에 중점을 둔 영어교수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며 북한의 대학과 기관 도서관에 비치된 대부분의 영어책은 가장자리가 닳을 정도로 많이 읽고 있었다고 언급
  - 리드 지부장은 또 북한 대학의 영어토론 수업이 '미국의 은행체계'를 주제로 진행됐다면서 "북한 대학생들이 미국의 은행직원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사업가의 역할을 맡아 영어회화를 익혔는데, 영어실력이 너무 탁월해서 무척 놀랐다"고 회상
- **北, 지적소유권 창조·보호 노력 경주(4/25, 조선중앙방송)**
  - 박성국 국가품질감독국 부국장은 "(북한에서) 지적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경제 생활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적 제품 창조와 보호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 박 부국장은 23~24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의 과학·교육·문화예술·출판보도 분야 관계자들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민족토론회의 개막 연

설에서 이같이 언급

- 1974년 WIPO에 가입한 북한은 2005년 평양에 '지적 제품 봉사센터'를 세운 데 이어 2006년부터 WIPO 대표단을 초청해 '지적소유권에 관한 민족토론회'를 개최
- 행사에서는 북한의 지적소유권 보호 실태와 정책, 정부·대학·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적소유권 교육의 중요성, 특허·상표권 침해 개요, 외국의 지적 소유권 보호 및 관리 사례 등이 발표

○ 亞유도선수권 北선수단 제주 도착(4/24, 연합)

- '2008 아시아 유도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17명이 24일 제주에 도착, 단장인 석용범(49) 내각 체육지도위원회 국장을 비롯해 총감독인 박학영(44) 북한 유도협회 서기장 등 임원 10명과 김철수(26), 박옥성(24) 등 선수 7명으로 구성된 북한 선수단은 이날 낮 중국 베이징발 동방항공편으로 제주국제공항에 도착
- 북한 선수단은 25일 심판강습회와 아시아유도연맹 회장이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하며, 26~27일 양일 간 대회에 참석한뒤 28일 오후 1시 베이징으로 떠남. 아시아유도연맹이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개최하는 2008 아시아 유도 선수권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카자흐스탄, 몽골, 대만, 이란 등 모두 39개국 선수단 800여명을 포함해 임원, 심판 등 모두 3천여명이 참가
- 체급별 국가대항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 우승자 등에게는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경기 출전권이 부여

○ 北어학잡지, 한자·외래어 사용은 사대주의(2008년 1호, 문화어 학습)

- 어학전문 계간지 '문화어 학습'은 언어생활에서 아직도 한자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사대주의적 현상'이 남아있다고 비판하고 이를 척결할 것을 촉구

○ 北, 온천·약수 요양소 수용능력 확충(4/23, 조선중앙방송)

- 북한 각 지역의 온천지대나 약수가 솟는 지역에 '요양마을'이 조성되면서 치료나 건강 회복이 필요한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2배가량 늘어났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작년 4월부터 온천·약수지대의 요양소 건설·확장사업을 추진해 왔음.
- 이에 따라 황남 삼천군 종달온천, 자강도 동신군 원흥온천, 평북 운산군 운산온천, 강원 판교군 갈산온천, 함북 명천군 황진온천에 각각 40~75동의 요양마을이 조성

○ 北 평균수명 72.2세, 인구증가율은 둔화(4/23, CIA홈페이지; 연합)

- 북한 주민의 평균수명은 올해 7월 기준 72.2세로 지난해보다 0.28세

길어질 것이라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추산, 북한의 총인구는 2천347만9천89명으로 지난해 2천330만1천725명에 비해 17만7천364명 증가, 0.732%의 증가율을 보임.

- 평균수명도 2005년 71.37세, 2006년 71.65세, 2007년 71.92세에 이어 72.2세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음. 북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2005년 0.90%, 2006년 0.84%, 지난해 0.78%로 둔화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조선중앙통신이 발행한 2007년판 '조선중앙연감'은 2004년 총인구를 2천361만2천명으로 발표해 같은 해 CIA의 추정치 2천269만7천553명보다 91만명 정도 많았음.

○ 北월향각, 가금류 요리로 인기몰이(4/22, 조선신보)

- 북한의 닭, 오리 등 가금류 전문식당인 월향각이 평양 관광 지방민들의 필수코스로 인기몰이, 조선신보는 22일 "조선(북)에서는 각지의 오리, 닭공장들이 개건돼 고기생산과 알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나라에서는 고기와 알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과 함께 오리, 닭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봉사의 폭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월향각도 그러한 봉사단위의 하나"라고 소개하고 특히 개선문 바로 옆에 있어 지방에서 상경한 관광객들이 금수산기념궁전과 개선문 관광을 마치고 방문하는 코스가 되고 있다고 보도

○ 北 식량대란 가시화 조짐…'돈있어도 양식 못구해'(4/22, 연합)

- 한국과 국제사회의 식량원조가 중단된 가운데 중국마저 올해부터 식량수출 제한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북한에서 돈이 있어도 식량을 수입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선양의 한 중국인 대북무역업자는 최근 북한의 사업 파트너로부터 2천t의 식량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음. 그는 22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북한 사업 파트너로부터 '얼마를 줘도 좋으니 무조건 식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중국에서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제3국을 통해서도 식량수입이 가능한지 타진해보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언

○ 北, 올해 AI 감염사례 아직 없다고 보고(4/22,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이 매년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계획을 세우는 등 방역체체 강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 WHO와 식량농업기구(FAO)에 북한내 AI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은 아직 없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

○ **北역사학술지, 中동북공정 거듭 반박(2008년 1월호, 력사과학)**

- 북한의 학술지가 "고구려의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조선 민족의 역사로 빛날 것"이라며 고구려를 중국사에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강력 비판
- '력사과학' 최근호(2008.1호)는 고구려를 거듭 "조선 민족의 나라"라고 못박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고구려의 역사를 조선 역사 서술 체계에서 취급하는 것을 자명한 것으로 여겨왔다"고 강조, "그런데 일부 대국주의 사가들은 마치 고구려의 역사가 조선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어떤 주변 나라 역사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던 것처럼 그릇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학술지는 지적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고구려가 어느 민족의 나라이고, 그 역사가 어느 민족의 역사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를 바로 해명하는 것은 절박한 문제"라고 언급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北외무성, 북미 협상 전진 있었다고 밝힘(4/24, 북한 외무성; 조선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은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평양 방문에 대해 "협상은 진지하고 건설적으로 진행됐으며 전진이 있었다"고 언급
- 대변인은 "협상에서는 핵신고서 내용을 비롯하여 10.3합의 이행을 마무리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언급

○ **北최태복, 미국과 우방으로 지낼 수 있어(4/23,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북한은 "미국과 우방으로 지낼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18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해 "우리는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우리와 평화적으로 공존하려 한다면 미국과 우방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공식 천명했다"고 언급
- 의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은 IPU 총회 참석 후 22일 평양으로 귀환

나. 북·중 관계

○ **박의춘 北외상, 취임후 첫 방중(4/26, 연합)**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26일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을 통해 중국에 도착, 3박 4일간의 공식 방중 일정을 시작, 박 외무상은 이날 오

전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주중 북한대사관이 준비한 관용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음.

-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방중한 박 외무상은 양 부장과 북중 외무장관 회담을 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과도 회동을 가질 예정, 박 외무상은 베이징 외에 금융 허브인 상하이(上海)도 방문할 예정

평양에 北-中 합작 담배회사 설립(4/23,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이 636만 달러를 투자한 담배 합작회사 평양백산담배합영회사가 23일 평양에 설립, 회사는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간 경제협력 및 우의의 결실"이며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고 북한의 조정웅 경공업성 부상(차관)이 조업식에서 언급
- 중국 지린연초공업유한회사(옌지담배공장)는 2000년부터 북한에 대동연초유한회사와 라선신흥연초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평양백산담배회사는 이 회사의 두번째 대북 진출 사업으로 북한의 조선수출입상사와 합작

방중 北공군사령관, 中국방장관 면담(4/23, 조선중앙통신)

- 중국을 방문중인 북한 리병철 공군사령관이 22일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을 예방하고 환담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 이 자리에서 량 부장은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인방이고 중조 친선은 장기간의 혁명투쟁 속에서 피로 맺어진 친선"이라며 "김일성 동지께서 중국의 노세대 혁명가들과 함께 마련해주신 중조친선은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소개하고 "지난 시기 두 나라 군대들 사이에 고위급 내왕을 비롯한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 중조 친선관계가 확대·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힘.
- 면담에는 최진수 중국주재 북한대사와 쉬치량(許其亮) 중국 공군사령관이 배석

노동신문 '티베트 결의' 美·EU 의회 비난(4/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유럽연합(EU)과 미국 의회가 잇따라 티베트 사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를 정치화하려는 미국과 서방의 움직임"이라고 비난
- 신문은 티베트 사태를 "티베트자치구의 라싸시에서 범죄집단이 감행한 조직적인 폭력 범죄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그럼에도 올림픽을 "중국이 주최하는 데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서방 세력들은 티베트 문제를 걸고 계속 소동을 피우고 있다"고 주장

다. 북・일 관계

재일본 조선인대표단 방북 후 출국(4/26, 조선중앙통신)

- 리기석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재일본 조선인 대표단이 26일 평양을 출발

北군·인민, 日 독도강탈책동 주시(4/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올린 '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팸플릿을 비난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파렴치한 독도 강탈 책동에 커다란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그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파렴치한 영토 강탈 야망'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외무성의 문서는 "영토 팽창과 조선 재침에 환장한 일본 반동들의 파렴치한 탐욕을 세계 앞에 확연히 드러내 보이는 망동"이라며 "우리는 남의 영토를 제 것으로 만들려고 분별없이 날뛰는 일본 반동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
- 신문은 "일본 반동들의 무분별한 독도 강탈 책동은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고 그들의 독도강탈 책동은 조선 재침, 아시아 재침의 길과 잇닿아 있다"며 "일본 반동들이 한사코 영토 팽창의 길에 뛰어든다면 파멸과 치욕밖에 차례질(돌아갈) 것이 없다"고 덧붙힘.

北, 원폭 피해자 기자회견 보도(4/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 살고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22일 일본 정부가 철저한 사죄와 조속한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일제시대 미군의 원자탄이 투하된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끌려갔다가 원폭 피해를 입은 이들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 주재 외국 특파원과 조총련 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 회견에서 원폭 피해자 모임인 '반핵평화를 위한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 서기장은 "우리 나라(북한)의 원자탄 피해자 문제는 일제의 군사적 강점이 빚어낸 산물"이라면서 "피해자들은 배상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 한편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는 이날 회견에서 북한 거주 원폭 피해자가 총 1천91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대부분이 사망하고 생존자가 382명이라고 밝혔다고 중국의 신화통신이 전언

노동신문, 日이 동북아 군비경쟁 부채질(4/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08 동아시아전략전망' 보고서와 외무성의 군축백서를 거론, 일본 정부가 해외팽창과 군비 증대에 주력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

라. 북·러 관계

- **북한 철도성과 러시아 철도공사 협조협정 체결(4/25, 조선중앙방송)**
  - 북한 철도성과 러시아 철도공사가 24일 모스크바에서 협조 협정과 합영기업 설립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
  - 중앙방송은 계약서 조인식에 북측 김용삼 철도상과 김영재 러시아 주재 대사,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 아나톨리 월로진 러시아철도무역주식회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

마. 기타외교 관계

- **北김영남, 토고 대통령에게 축전(4/27,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6일 파우레 그나싱베 토고 대통령에게 독립 48주년을 기념한 축전을 보내 친선협력 관계의 확대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매체들, 시리아와 친선관계 잇따라 보도(4/27, 조선중앙방송; 4/24,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북한과 핵협력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와 친선을 과시하듯 시리아의 '알 아흐드 알 와타니당' 총비서가 지난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보낸 축전 소식을 27일 보도
  -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이 당의 기사 가산 아부들 아지즈 오스만 총비서는 고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을 기념한 축전에서 김 주석이 "두 나라, 두 당 사이 관계, 그리고 호상 존중과 호혜에 기초한 국가들 사이 관계수립을 위해 정력적인 활동"을 벌였다며 "우리 나라(시리아)의 투쟁과 민족적, 지역적, 국제적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귀당과 귀국 인민의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
  - 평양방송은 24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시리아의 독립 62주년을 축하하는 전문을 보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21일자 답전을 보내 "두 나라 인민들 사이 친선협조 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소개

- **외무성대표단 유럽 순방 출발(4/26, 조선중앙통신)**
  - 궁석웅 부상을 단장으로 한 외무성 대표단이 체코,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을 순방하기 위해 26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불가리아 사회주의당 대표단 평양 방문(4/26, 조선중앙통신)**

- **루돌프 자이터스 독일 적십자사 총재 귀국(4/26, 평양방송)**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아프리카 국가들에 축전발송(4/26, 조선중앙통신)**

-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 시에라리온 대통령에게 독립 47주년을 기념해 축전 발송, 또 타보 음베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게도 축전을 발송

○ **인도네시아에 북한 미술특별전 개최(4/25,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미술 특별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립미술관에서 23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소개, RF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북한 미술 특별전은 양국 간 문화교류 협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

○ **北, UAE 대사에 허종 임명(4/2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2007년 9월 수교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사에 허종 쿠웨이트주재 대사를 겸임 발령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허 대사는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한 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89.9), 유엔주재 차석 대사(90.3), 외무성 순회대사(95.12),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담 북측 단장(2003.6)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쿠웨이트에 주재하며 카타르와 바레인 대사도 겸하고 있음.

3. 대남정세

○ **개성공단입주예정 기업, 자금 부족으로 입주지연(4/27, 연합)**

- 개성공단 입주예정 기업 중 상당수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입주에 차질을 빚거나 심지어 입주를 포기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성공단 2차 분양을 받은 167개사 중 85개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개성공단 입주 준비현황을 조사한 결과 62.4%가 시공사를 아직 선정하지 못했음. 또한 분양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착공을 한 기업은 21.5%에 불과
- 입주예정 기업 중 59.0%는 '자금조달에 차질이 있다'고 밝혔으며, 그 원인으로 '특례보증 지원한도의 축소'(64.1%)를 꼽음. 입주예정 기업들은 "지난해 개성공단 분양설명회 때 통일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0억원까지 시설자금의 70%를 특례보증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그만큼 보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 또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의 공장부지와 시설들이 제대로 담보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대출의 주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
- 한편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비용은 평균 60억8천만원으로 집계, 입주

예정 기업들은 '금융기관 대출'(57.2%)이나 '자체 자금조달'(39.4%)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분양업체들은 2009년 7월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면 분양계약이 취소된다"며 "입주예정 기업 상당수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남북관계 경색에 충북도 대북 농업지원 차질(4/26, 연합)**

-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충북도가 대북 농업지원에 나섰으나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농업 기술자들이 북한에 가지 못하면서 차질
- 충북도에 따르면 26일 옥수수 농사법과 농기계 조작법 전수,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위해 황해북도 봉산군에 파견키로 했던 20여명의 농업기술자들이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과 맞물려 북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 바람에 방북하지 못했음. 충북도는 북측과의 일정 조정을 통해 5월 초 농업기술자들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
- 도는 이에 앞서 3월 11일 김정수 농정본부장이 봉산군을 방문해 북한측과 농업지원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한 뒤 3월 31일 10ha 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수수 종자 350kg과 비닐하우스 10채를 지을 수 있는 농자재, 비료 70t, 직파기 8대, 분무기 110대, 경운기 5대, 관리기 16대 등을 북한에 보냈으며 이들 농자재들은 4월 초 북한에 도착

○ **통일부, 금강산 청년학생대회 8명 방북 불허(4/25, 연합)**

- 통일부가 4월 26~28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5차 남북 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 참가를 신청한 42명 가운데 8명의 방북을 불허,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상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 등과 관련해 불허했다"며 "불허한 8명은 법원 판결에 따른 이적단체 구성원이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들"이라고 설명.
- 관계자는 "이렇게 8명이 한꺼번에 불허된 것은 근래에는 없었던 것 같다"면서도 "이번 행사를 잘 치렀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행사 차질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안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 하에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
- 그러나 이번 방북단을 구성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의 이호년 집행위원장은 "박지현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관계자 2명은 집행유예 상태로 법절차가 진행 중이라 (방북 불허를)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승호 의장 등 6명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

3월 중 북한산 모래 인천항 반입 크게 감소(4/25, 연합)

- 인천항을 통한 북한산 바닷모래 반입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5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3월 중 인천항을 통한 북한산 바닷모래 반입량은 92만7천885t으로 2007년 같은 달의 118만2천523t에 비해 21.5% 감소, 지난 1~2월 반입량이 208만1천159t으로 작년 동기의 195만1천9t에 비해 6.7%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3월 들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감소
- 세관은 최근 충남 태안 해역과 전북 군산 배타적경제수역 등지에서 모래채취가 본격 허용되면서 북한 해주에서 모래를 채취하던 선박들이 국내 해역으로 이동, 북한산 모래 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음. 국토해양부도 이런 변화를 감안할 때 올해 북한산 모래 반입량은 지난해 1천495만6천㎥에 비해 60% 가량 감소한 600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

통일부, 남북경협 원스톱서비스 사이트 개설(4/25, 통일부)

- 통일부는 남북경협 사업과 관련한 민원인들의 애로 사항 및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남북경제협력통합지원센터(www.unikorea.go.kr/unieconomy)를 개설했다고 25일 발표
- 이 사이트는 남북경협 관련 법령 및 기금지원 제도, 남북경협 동향 등 정보와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통일부는 소개

北경공업 공장 기술지원팀 방북(4/23, 연합)

- 북한 경공업을 지원하기 위한 남측 전문가팀이 4월 23~26일 북한을 방문, 남측 원자재가 제공된 신발 공장에서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발표, 이번 방문은 남북간의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사업과 관련, 남측이 북에 8천만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통일부는 설명

그린닥터스, 개성병원 150병상 규모로 확대(4/22, 연합)

- 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는 개성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북협력병원을 2010년까지 150병상을 갖춘 대학병원급 병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22일 발표
- 이 단체는 22일 오후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연 2008년 정기 총회에서 "그린닥터스 개성병원을 북한 남부지역 중추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50병상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역 상공인과 시민단체 등에 후원과 동참을 촉구

北, 26일부터 개성공단에 닭·계란 반입 금지 통보(4/22, 통일부)

- 북한 당국이 22일 남한의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과 관련, 4월 26

일부터 개성공단에 닭, 계란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힘.

- 개성공단에는 공단 직원들의 식재료로 매달 생닭 8.5t과 계란 12만7천개 가량이 반입되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
- 통일부 측은 "북한이 서면으로 조류 등 반입금지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에도 남한 내 AI 발생보도 등이 있을 때 북한은 구두로 조류 반입 금지를 요청했다"면서 "가깝게는 작년 3월에 북측의 구두 요청에 따라 조류 반입을 중단했다가 7월 반입을 재개한 바 있다"고 설명

해남 황토고구마 내달 중순 평양 '입성'(4/21, 연합)

- 전남 해남 황토 고구마가 5월 중순 북한 평양에 뿌리를 내리게 됨. 군 관계자는 "4월 11일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신삼식 소장과 농발협 사무총장이 개성을 방문, 고구마 적응 시험재배, 육묘 및 저장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4월 27일 농업용 기계 및 자재를 남포항으로 수송하게 된다"고 밝혔음.

금강산 온정각 일원에 봉축 연등(4/21, 연합)

-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는 부처님오신날(5월12일)을 맞아 금강산 온정각에 봉축등을 밝히고, 쌀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

북한연구실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김 숙, 방미…내일 한미 6자수석대표 회동(4/27)

-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7일 오전 11시 한·미 수석대표 회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남.
- 김 본부장은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만나 지난 22~24일 이뤄진 미 실무대표단의 방북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한 의견 조율을 할 예정
- 이번 회동에서는 미국 정부의 '북-시리아 핵협력 확신' 발표가 6자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北-시리아 핵협력 놓고 민주·공화 뒤바뀐 입장차(4/27)

- 부시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북한과의 핵협상 결과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은 6자회담 뿐이라며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민주당 소속인 하원 외교위 하워드 버먼 위원장은 26일 북한-시리아 핵협력과 관련, 성명을 내고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은 검증가능한 핵확산금지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6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와 대조적으로 공화당의 대권경쟁에 나섰던 중진인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북핵 협상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최초의 여성 주한미대사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거친 캐슬린 스티븐스 후보자의 인준을 보류시키고 있음.

北-시리아 핵지원 발표, 연료·재처리시설 증거 빠져(4/26)

- 북한이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지원했다는 부시 행정부의 발표에는 핵연료와 재처리시설 등 중요한 증거가 빠져 있다고 미국 외교전문기자인 글렌 케슬러가 26일 워싱턴 포스트(WP)에서 지적
- 케슬러는 중앙정보국(CIA)이 기자들에게 보여준 자료들 가운데 스틸 사진도 조금 있었지만 동영상의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광범위하게 사용했고 이들 자료 가운데 어느 것도 북한인이 원자로 건설 장소에 있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밝혔음. 행정부는 시리아의 원자로가 가동 직전 단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펴면서도 시리아가 원자

로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우라늄을 획득하거나 제조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행정부가 제출한 사진들은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을 보여줬지만 날짜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

- 케슬러는 플루토늄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운송시스템이 필요한데 시리아가 그런 무기를 개발하는데 거의 도달했다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
- 케슬러는 행정부는 시리아가 북한의 영변 원자로를 모델로 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관을 변경했고 이스라엘 공습 이후 신속하게 원자로를 해체하고 모든 증거를 없앴다며 이 시설이 사악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행정부의 주장을 소개

◎ "北-시리아 핵 커넥션 발표로 美의회 분노"<WP>(4/26)

- 워싱턴 포스트(WP)는 26일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과 핵협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번 주에 북한의 시리아 핵프로그램 지원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도박을 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북핵협상에 대한 지지가 심각하게 약화될 수도 있다고 보도
- 포스트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고문이었던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 지명자의 상원 인준 보류를 요청했다고 전했음.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전날 미국이 북한이 시리아에 지원을 했다는 의혹 발표를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뒤에 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고 비난했고, 북한의 도움으로 건설하고 있던 시리아의 원자로 의혹 시설에 대한 작년 9월 6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습은 IAEA가 신고하지 않은 핵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되풀이했다고 포스트는 덧붙였음.

◎ 주미 시리아 대사 "핵시설 사진은 조작된 것"(4/26)

- 이마드 무스타파 주미 시리아 대사는 25일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 의혹과 관련,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24일 제시한 시리아 원자로 추정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
- 무스타파 대사는 이날 워싱턴 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진들은 웃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핵시설 의혹을 받고 있는 시설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음.
- 이스라엘은 지난해 9월 문제의 시설물을 폭격했으며 시리아는 한달 뒤 시설물이 있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이전보다 더 큰 시설물을 건설했음.
- 무스타파 대사는 "우리는 불법적이거나 국제적으로 금지된 활동에 북한과 연계돼 있지 않다"면서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핵 기술

을 확보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음.

○ 힐 "한국과장 방북은 플루토늄 논의가 목적"(4/26)

- 힐 차관보는 성 김 과장이 북측과 사흘간의 논의를 마치고 귀환하게 된다면서 "성 김 과장은 플루토늄 논의를 목적으로 (평양에) 갔으며 우리가 플루토늄을 논의할 때는 검증도 논의한다. 검증은 이 문제와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음.
- 그는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약속과 언질도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검증 메커니즘이 갖춰지지 않은 언질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혀 북핵 프로그램 신고에는 반드시 검증이 뒤따라야 함을 거듭 강조했음.

○ 美 "北-시리아 핵협력 정보, 지난해 北과 공유"(4/26)

-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는 브리핑을 받았으며, 북한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께 브리핑을 받았다"며 "우리가 6자회담 당사국과 우방에 설명한 내용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내용과 기본적인 결론은 6자회담 당사국들에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음.
- 그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전날 상하원 브리핑에서 공개한 시리아 핵시설 관련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도 공유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보당국이 마련한 비디오 테이프가 공유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정보가 공유됐기 때문에 그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 지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음.
-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시리아 핵커넥션이 기정사실화된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북 한이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면 그것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으로 넘어가 검증, 분석,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北, 시리아 핵시설 피폭뒤에도 협력"<美정보당국>(4/26)

- 북한은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 핵시설을 공격, 파괴하기 전에 시리아 핵활동을 도운 것은 물론 시리아 핵시설 파괴 후에도 사태수습을 도왔다고 미 정보당국이 25일 밝혔음.
- 미 정보당국은 이날 배포한 북-시리아 핵협력 브리핑자료에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시리아의 비밀핵활동을 핵원자로가 파괴되기 이전과 이후에 지원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음.
- 정보당국은 시리아 핵원자로 피폭후 북한과 시리아의 협력과 관련, "북한 핵관리들이 시리아 핵원자로가 위치에 있던 지역에 작년 초는 물론 작년 말에도 있었다"면서 "우리가 확보한 정보들은 북한 고문단들이 시리아 핵원자로가 파괴된 뒤 손상 평가를 도왔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음.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시리아

핵시설이 피폭된 뒤 시리아를 방문했으며 이들은 시리아 비밀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관리들을 만났다고 밝혔음.

美, 핵협력불구 北 테러지원국 삭제가능성 시사(4/26)

- 국무부 숀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시리아 핵협력이 테러활동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장래에 예상되는 문제"라면서 즉답을 피했음.
-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이 핵재고량과 핵확산 활동에 대해 완전하게 공개토록 한 의무를 충족하면 미국은 '사실'들과 '다른 요소'들을 평가하고 법적 문제 등을 검토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이어 그는 "6자회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다고 본다"며 6자회담의 지속적인 추진을 거듭 확인했음.

"북·미, 핵검증 협력하기로..성 김 방북 성공적"(4/25)

- 22~24일 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25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만나 북측과의 협의 내용을 설명했음.
-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은 성 김 과장의 방북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면서 "북한과 미국은 플루토늄 관련 사안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해 진전이 이뤄졌으며 신고 내용의 검증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의,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 외교 당국자는 간담회를 갖고 "북·미 간에 진지한 협의를 했다"고 평가했고 북·미가 신고서 제출 전에 추가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협의를 끝내고 공개만 남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추가 회동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북-시리아 1997년부터 비밀 프로젝트 협력"<WP>(4/25)

- 조지 부시 행정부가 24일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을 확인한 것을 북한에게 북한의 핵프로그램 관련 모든 세부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USA투데이'가 25일 보도
- 투데이는 이날 익명의 고위관리 말을 인용, 미국은 작년 봄에 이미 시리아의 핵개발을 북한이 돕고 있다는 믿을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하지만 즉각 공개할 경우 북한과 시리아의 외교적 반발을 우려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음. 미국 정부는 이번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 증거공개가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확산활동에 대해 더 정확하고 완전하게 공개하도록 하기를 희망한다고 이 관리는 밝혔음.
-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과 시리아는 지난 1997년부터 비밀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 2001년 시리아가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외딴 사막지대에 원자로를

건설하기 전에 이미 북한의 영변핵시설과 관련된 북한의 고위관리들이 수차례 시리아을 방문했다고 보도

"백악관, 북미 싱가포르 잠정합의 재협상"<WT>(4/25)

- 타임스는 지난 23일 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14명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 행정부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음.
- 부시 행정부는 비록 미국이 북한의 간접시인도 수용하더라도 북한이 더이상 그런 활동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된 모든 장소에 대한 접근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음.
-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잠정합의를 세부조율하고, 북한의 최종적인 핵 신고 내용이 미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은 금주에 북한에 보냈다고 타임스는 밝혔음.

美당국자 "北, 돈 벌기 위해 시리아와 핵 협력"(4/25)

- 복수의 미 정보당국 고위 당국자들은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시리아의 비밀스런 핵 프로그램에 북한이 협력한 의도는 "현금 때문"이라면서 "다른 가설도 검토해 보았지만 이 원자로는 시리아가 사용할 목적으로 시리아에 지어진 것"이라고 말했음.

미, IAEA에 북-시리아 핵협력 의혹 조사 희망(4/25)

- 미국은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시리아 핵협력 의혹을 조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익명의 미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음. 이 관리는 존 루드 국무부 차관이 이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에게 북한-시리아 문제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전했음. 그는 특히 미국은 이 문제가 종국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내비쳤고, "내가 알기로는 (안보리가) 고려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IAEA가 이 문제를 조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매케인 "北-시리아 핵커넥션 놀랄 일 아니다"(4/25)

- 매케인은 24일 뉴 올리언스에서 "북한이 10년이상 깊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행동하지는 않은 만큼, 시리아에 대한 북한의 핵협력 폭로가 골칫거리가 되겠지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음. 또 "우리의 외교 목표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 핵확산 활동 중단 및 완전한 해명을 통해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합의가 돼야만 한다"며 "어떤 합의든 완벽하게 입증돼야 하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이익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음.

- 매케인은 "우리의 외교는 희망 이상의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북한이 시리아에 핵지원을 했다는 사실은 조건없이 외국의 적들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정일과 같은 지도자와 조건없이 만나겠다는 오바마의 태도에도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음.

中 "시리아 의혹, 6자회담에 영향 없어야"(4/25)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6자회담 2단계 행동계획이 적극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 핵시설 불능화 작업도 적극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 쌍방이 앞으로도 계속 성의와 융통성을 갖고 협상을 강화해 교섭에 성과를 내고 이해와 신뢰를 회복해 해결책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미국이 제시한 北-시리아 '核커넥션' 증거는(4/25)

-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시리아 비밀 핵의혹 시설 공습 이후 8개월 가까이 침묵으로 일관하다시피 해오다 24일 중앙정보국(CIA)의 상·하 양원 비공개 브리핑을 계기로 북한과 시리아의 핵커넥션을 확신한다고 공식 발표
- CIA가 의회에 대한 브리핑에서 핵시설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의 설비를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가 존재하며, 여기에는 북한인의 모습과 북한 영변 원자로의 것과 동일한 원자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결정적 증거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보도
-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시리아 정권이 2007년 9월6일까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동부 사막지역에서 비밀스럽게 건설해왔는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설이 파괴된 이후에 신속히 증거가 될 지역을 덮어버렸다"면서 "이런 위장은 이 원자로가 평화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음.

美 "北, 시리아 핵활동 협력"…북핵 새 국면(4/25)

- 백악관은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시리아의 비밀스런 핵활동에 협력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음.
- 성명은 "우리는 지난해 9월 6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시리아의) 원자로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확산활동에 대해 오랫동안 심각히 우려해 왔는데 북한과 시리아가 비밀 핵협력을 해 온 것은 그런 활동이 위험한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 중 하나는 6자회담이라는 틀이었

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이런 행동과 기타 핵활동이 종식될 수 있도록 6자회담에서 엄격한 검증 메커니즘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음.

백악관 "北, 시리아 비밀 핵활동 협력"(4/25)

- 성명은 "우리는 IAEA에 이런 정보를 브리핑했으며, 시리아 장권은 전 세계 앞에 나와 불법적인 핵활동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시리아가 국제사회와 좀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면 이런 활동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성명은 "이번 사태는 동일한 정권이 확산을 지원하고, 테러리즘을 후원하고, 불안정을 조장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활동과 그런 활동이 중동의 안정에 던지는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갖는 게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음.
- 백악관의 이날 성명은 마이클 헤이든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북-시리아 핵협력 의혹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한 뒤 나온 것

美의원 "北-시리아 의혹 심각..해명해야"(4/25)

- 미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측 간사인 피트 호에크스트라 의원은 이날 마이클 헤이든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부터 북한과 시리아간 핵협력 의혹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이 있는 뒤 "이것은 중동과 아시아 모두에서 심각한 확산 문제"라며 이에 대한 관련국들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호에크스트라 의원은 또 북한이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혹에 대한 "분명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시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부시 행정부는 "의회와의 관계를 정말로 손상시켰기 때문에 혹시 6자회담에 대한 모종의 합의에 이르렀다 해도 의회를 거쳐 승인을 얻어내는걸 아주 어렵게 만들었으며, 그것은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음.

美 정보당국, 의회에 北-시리아 핵협력 의혹 설명(4/25)

- 마이클 헤이든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비롯한 정보 당국자들은 이날 미 상·하원 정보위, 군사위, 외교위 소속 의원 등에게 북한과 시리아간 핵협력 의혹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브리핑했고, 브리핑은 오전과 오후 4차례에 걸쳐 잇따라 실시
-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미 정보당국이 의회에 대한 브리핑에서 핵시설 의혹을 받고 있는 시리아의 설비를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가 존재하며, 여기에는 북한인의 모습과 북한

영변 원자로의 것과 동일한 원자로가 등장하고 있다고 밝힐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

- 비디오에 드러난 시리아 원자로의 노심 설계는 연료봉 주입구수, 외형 등에서 영변 핵시설의 것과 같았다고 미국 관리들은 말했고, 시리아 원자로의 안팎은 영변 원자로와 이상하리만큼 유사했으며, 한 핵무기 전문가조차 이 비디오를 보고 "아주 꼼짝 못할 증거"라고 한 관리는 말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음.

美 국무부 "北 확산문제, 6자회담서 다뤄야"(4/24)

-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핵확산 활동과 검증 문제가 그동안 북핵 6자회담의 중요 부분으로 다뤄져 왔다며 확산 문제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게 국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음. 이어 북한이 제출할 핵신고서에는 플루토늄은 물론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과 핵확산 활동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하고 북한의 신고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국무부 방침을 거듭 설명
- 북핵 6자회담 다른 당사국들도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보고 각각 독자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성 김 과장의 평양 방문에 대해 "협상은 진지하고 건설적으로 진행됐으며 전진이 있었다"고 논평했음.

北외무성 "북미 협상 전진 있었다"(4/24)

- 대변인은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우리 해당 부문 일꾼들과 미 국무성과 백악관 관리들, 국방성과 에네르기(에너지)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 핵전문가 대표단 사이에 협상이 진행됐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음. 북한의 핵신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했던 성 김 과장은 3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24일 서울에 도착

美국무부 "북핵신고에 확산활동 포함돼야"(4/24)

-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관련, "우리는 6자회담의 나머지 당사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제출할 신고서에 확산활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고,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시리아간 핵협력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6자회담이 담당하고 있는 한 부분이 확산 문제와 관련된 것이며,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말했음.

美행정부, 의회에 북-시리아 核의혹 브리핑(4/23)

- 23일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

국(CIA)은 상원과 하원 정보위원회 및 유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시리아의 핵개발 의혹 및 이 과정에서 북한의 협력 의혹에 대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설명할 예정

- WSJ은 CIA의 이번 브리핑이 북한이 영변 원자로와 비슷한 시리아의 플루토늄 원자로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줬고 북한의 노동자들이 이스라엘 공습 당시에 현장에서 활동했다는 사실도 확인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

○ 中 "北 핵신고서 아직 못받아"(4/22)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 관련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말했음. "중국은 6자회담 당사국들의 협조와 교류를 지지하고 이를 통해 6자회담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면서 "특히 북한과 미국이 적극적인 성과를 이뤄내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 "北, 플루토늄 '핵개발 18kg, 핵실험 6kg' 사용"<日紙>(4/21)

- 북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의 사용처에 대해 미국에 핵개발에 약 18kg, 2006년 10월의 지하핵실험에 약 6kg을 각각 사용했다고 설명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0일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 보도
- 소식통에 따르면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차관)은 작년 12월 평양을 방문한 미국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에게 약 3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밝히면서 사용처를 이같이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50kg 이상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플루토늄 생산량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큰 만큼 미국측이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음.

나. 미·북 관계

○ "美의회, 北인권 증진기금 400만弗로 확대 추진"<AP>(4/25)

- 하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30일 관련 법안을 논의할 계획인데 탈북자들이 미국 내에서 정착하는 데 정부가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음. 새로 추가되는 자금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단체들에 대한 지원 규모를 증대시키는 데 투입될 전망임. 미국이 재정을 지원해 설립된, 대(對) 북한 라디오방송들에게 교부금도 제공하게 되며, 법안은 또 북한 인권특사를 상근 대사직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들어 있음.

○ 美국무부 "北, 아직은 테러지원국 명단에"(4/23)

- 미국 정부가 오는 30일 발표할 연례 테러 보고서에는 여전히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22일 밝혔음.

톰 케이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발간되는 보고서는 2007년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의 테러지원국 명단 포함이나 제외 여부는 보고서 발간과 무관하다"고 설명

美국무부 "평양방문단 김계관 만나"(4/23)

-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을 팀장으로 한 미국 실무방북팀은 22일(미국 시간)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를 협의했다고 톰 케이시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음. 케이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가 파악하는 바로는 방북팀이 오늘 김계관 부상을 만났고, 앞으로 하루 이틀 더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고, "(실무방북팀은) 북한의 핵신고에 초점을 맞춰 일하게 될 것"이라며 "성 김 과장이 한국도착 때 밝혔듯이 검증문제와 관련해서도 (북측과) 의견교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음.

"北, 美와 '전략적 동반자'관계 원해"<美방북단>(4/22)

- 최근 방북한 미국의 민간방북단을 만난 북한의 외무성과 군부 관계자들은 북한과 미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것을 원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 미군의 한국 주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방북단의 말을 인용해 22일 전했고, 이들 북측 관계자들은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와 학자들로 구성된 방북단과 면담에서 또 남한과 일본에 대해선 적개심을 나타내면서도 미국에 대해선 어떠한 부정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방북단은 말했음.

다. 중·북 관계

박의춘 北외상, 취임후 첫 방중(4/26)

- 양제츠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26~29일 중국을 공식 방문 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26일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을 통해 중국에 도착, 3박 4일간의 공식 방중 일정에 들어갔음.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방중한 박 외무상은 양 부장과 북·중 외무장관 회담을 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과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며, 베이징 외에 금융 허브인 상하이(上海)도 방문 예정

中, 대북 누적 투자총액 1년새 2배로(4/24)

-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23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합영회사인 평양 백산연초회사 개업식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의 대북투자 금액이 올해 1월 현재 협의투자액 기준으로 84개 항목에 2억6천만달러에 이르렀다고 보도
-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공식 웹사이트가 2006년 10월까지 식품, 의약,

경공업, 전자, 화학공업, 광산 분야 등 49개 항목에서 1억3천500만달러의 대북투자 이뤄졌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근 1년 사이 대북 누적투자 총액이 2배로 증가

○ **北대표문화상품 '평양교예단' 中서 순회공연(4/21)**

- 21일 중국 장쑤(江蘇)성에서 발행되는 신화일보(新華日報)에 따르면 평양국립교예단이 내달 30일 난징(南京)에서 공연을 할 예정
- 이에 앞서 후베이(湖北)성 현지언론은 이달초 "5월1일부터 3일까지 우한(武漢)에서 평양교예단이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

라. 일·북 관계

○ **후쿠다 "북-시리아 핵 협력 우려하고 있다(4/25)**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25일 북한이 시리아의 비밀핵 활동에 협력했다고 확신한다는 미국 백악관 대변인 성명과 관련해 "정확한 발표를 아직 듣지 못했지만 그런 관계가 있다면 핵 비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큰 문제다.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문제도 북핵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음.
-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시리아의 핵 활동을 비밀리에 지원했다면 대단한 문제"라고 말했음.
-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 합의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대단한 유감"이라고 말했음.

○ **"北, 日에 원폭 피해자 보상요구"<신화통신>(4/22)**

- 조선원자탄피해자협회 계성훈 비서장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원자폭탄 피해자가 총 1천91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대부분이 사망하고 생존자가 382명이라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고 신화통신 보도
- 통신에 따르면 계 비서장은 원폭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자손도 원자병 유전의 영향으로 사회 생활에서 각종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음. 계 비서장은 일본이 2006년 3월 현재 25만명의 원폭 피해자에게 각종 보상과 의료지원을 했다고 소개했고,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원폭 피해자에게 건강수첩과 확인서를 제공했으며 외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선 연간 1인당 13만엔을 지원했으나 북한 거주 원폭 피해자에 대해선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마. 러·북 관계

○ **北·러, 하산-나진 철도 현대화 계약 체결(4/25)**

- 러시아와 북한이 2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하산과 북한 나진

항을 잇는 연장 54km의 철도의 현대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음. 러시아 철도청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과 김용삼 북한 철도상이 양국 철도협력에 관한 계약서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음.

- 계약 내용에는 두만강-나진 철도 재건, 나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돼 있고, 양국은 하산-나진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수송을 담당할 합영기업 설립에 합의했음. 이 합영기업은 앞으로 한국 등으로부터 외자를 끌어 들여 두만강-나진 철도를 연결하고 나진항 3호부두를 개보수해 향후 나진항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계하는 국제화물 수송을 담당하게 됨. 49년간 운영될 이 합영기업의 지분은 자본유치와 공사를 담당하게 될 러시아 측이 70%를 갖기로 했음.
- 양국은 하산-나진 철도 활성화를 위해 국경 부근에서의 자유로운 물류 이동을 허용키로 했고 하산역과 두만강역에서는 통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합의했고, 북한 두만강역은 현재 8개의 차량교체 전용선로, 그리고 500개의 자국 컨테이너와 700개의 러시아 컨테이너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역은 한반도종단철도(TKR)가 TSR과 연결될 경우 가장 유력한 2개 노선 중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음.
- 2000년 9월 시작된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를 계기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 사이에 거론되기 시작한 TKR과 TSR 연결방법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노선은 부산-신의주-중국횡단철도(TCR)-TSR 노선과 부산-원산-두만강역-TSR 노선이고, 두만강역은 부산-원산-두만강역-TSR 노선의 한반도 내 마지막 역임.
- 러시아 측이 하산-나진 철도 현대화에 17억5천만루블(약 1억달러)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동맹, 급변사태계획·BMD 적극 대처필요"<롤리스 前 副차관>(4/25)

-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24일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때보다 동등하고 균형적이고 만족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했다면서 양국의 군사적 관계에서 그동안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공동의 '급변사태계획(Contingency Plan)'과 BMD를 적극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롤리스 전 부차관은 이날 워싱턴에 있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한

미동맹의 전환(Transforming the US-South Korean Alliance)'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급변사태계획은 과거 정권에서 논의가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BMD와 관련,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중국을 공격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

- 롤리스 전 부차관은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으로 방어에 주도적인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재래식 방어체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사적인 필요에도 대처해야 하며 정치적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BMD가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결국 그 결정은 한국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전문가진단> "한미정상, 전략적 동맹관계 토대구축"<클링너>(4/22)**

- 미국의 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제기됐던 부자연스런 관계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이 같이 평가하고, "두 정상은 기업가 출신, 보수자유주의 원칙과 북한에 대한 실용적인 평가, 돈독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공통된 배경을 바탕으로 강력한 개인적 유대를 형성했다"며 한미 양국의 지도자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공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개인적 친분 관계로까지 발전했다고 의미를 부여
-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FTA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무역법안 처리 규칙까지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한미FTA와 다른 무역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적

나. 한·일 관계

○ **"韓中日 정상회담, 9월 일본서 개최"(4/23)**

- 한국과 중국, 일본이 정기적인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오는 9월 일본에서 첫 회의를 갖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3일 보도
-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금년 중 일본 개최 방침에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는 다음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일중 정상회담에서의 정식 합의를 거쳐 실무차원의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음.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담도 일본에서 개최됨.

李대통령 "후손에게 정직히 가르치는게 중요"(4/21)

-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은 21일 한일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다르다"며 "역사는 양국이 힘을 합쳐서 정립하는 것이 좋다. 후손에게도 정직히 가르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음.
- 일본을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민영 방송 TBS 프로그램 '일본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과거 역사를 잘 정립하고 청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거를 다시 만들어 낼 수 없지만, 미래는 양국이 힘을 합치면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들은) 청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맡겨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음.
-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과거사 관련 망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치인들의 얘기에 다 관심을 갖고 대응하면 어떤 나라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치가들은 아시가 국가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당부했음.
- 북핵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한국은 대북 강경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더욱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대할 것이다"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대화도) 나는 진실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특별한 조건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역도라고 하면서 만나는 것은 불편한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음.

李대통령 "美, 연내 한미FTA 비준할 것"(4/21)

- 이 대통령은 일본 도쿄(東京) 데이고쿠(帝國) 호텔에서 열린 순방 수행기자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미국 대선결과가 한미 FTA 비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고, (FTA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후보 등도 국익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음.
- 이 대통령은 또 방일 및 한일정상회담 목적과 관련, "이미 양국 국민들이 일일생활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도 일일생활권이 돼야 한다"며 실질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했음.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언급, "낙농업자들은 보상을 하려면 숫자가 작지만 우리 도시민들이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값싸게 먹을 수 있다"고 지적했음.

李대통령 "새 한일관계 기업이 중추역할"(4/21)

- 이 대통령은 이날 도쿄(東京) 데이고쿠(帝國)호텔에서 열린 일본 재계단체 게이단렌(經團聯)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한일 양국은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협력자,

나아가 지구촌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나가야 한다"면서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CEO(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nedly.친기업)' 노선을 천명했다"고 소개한 뒤 "취임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런 새 정부의 노력은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일본 기업인 여러분도 이런 변화의 물결에 함께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음.

-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적교류, 문화교류 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될 때 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의 토대가 갖춰진다"고 강조했음.

李대통령 "日 천황 한국 방문못할 이유 없다"(4/21)

- 일본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21일 오후 황궁에서 아키히토(明仁) 일왕과 미치코(美智子) 왕비를 면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 방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역사의 진실을 망각하지 않되 실용의 자세로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했고, 이에 대해 아키히토 일왕은 양국 국민이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상호 신뢰와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음.
- 이 대통령은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간 교류확대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고, 아키히토 일왕은 젊은 세대들간의 교류확대 등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대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음.
- 이 대통령은 앞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왕 방한과 관련, '일왕' 대신 '천황'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전에 얘기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지만 일본 천황이 굳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음.

한일 재계, 경제협력 대폭 강화 합의(4/21)

- 한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재계 총수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일 비즈니스 서미트 라운드테이블'은 21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5개 항의 합의문을 채택
- 서미트 라운드테이블은 한일재계회의, 한일경제인회의 등 기존 채널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1차 회의는 21일 도쿄에서, 2차 회의는 올 가을 서울에서 각각 개최키로 했음. 이날 채택된 합의문은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에게 곧바로 보고되는 등 양국 정부의 큰 관심을 받았음.
- 합의문에는 양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을 통해 투자환경 정비·개선과 관련한 과제를 발굴해 양국 정부

에 건의하는 한편, 부품·소재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키로 하는 내용이 담겼음.

- 또 ▲환경, 에너지절약, 지역간 산업교류 등의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제휴·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관계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EPA(경제연계협정) 교섭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에 양국 정상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구축과 국제사회에서 양국 경제계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폭넓게 검토키로 하는 것도 포함됐음.

후쿠다 "납치·핵·미사일 현안 포괄적 해결"(4/21)

- 후쿠다 총리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마친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불행한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이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음..
- 후쿠다 총리는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북미관계, 북일관계 정상화 등을 포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일본은 납치, 핵, 미사일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며 하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음.
- "향후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도록 미일간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에 대해 행동을 취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음.

日 한국어선 잇따라 나포…올들어 10척(4/21)

- 20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나가사키(長崎)현 고토(五島)에서 약 197km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중이던 한국의 연승어선 한길(29t)호가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음. 선장 강형득(57)씨도 체포됐음.
- 일본 당국은 조사 결과, 강 선장이 지난 19일 정오부터 20일 정오까지 조업일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갈치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음.

한일정상 합의 '셔틀외교'란(4/21)

-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21일 정상회담에서 복원에 합의한 '셔틀외교'는 양국 정상이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며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실무회담을 열어 소통을 확대하자는 취지
- 이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간 셔틀외교를 활성화해 현안사항들을 수시로 협의키로 했다"면서 "양국

정치인들의 상호교류와 네트워크 구축도 서로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음.

한일 정상회담 내용과 성과(4/21)

-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간 19일 정상회담은 참여정부에서 소원해진 한일관계를 정상화해 미래지향적 '신시대'를 개척하고, 양국간 실질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6자회담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
-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이 서로를 향해, 또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양국이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음.
-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만들자는 입장에서 이미 선진국 대열에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실용적 입장에서 접근하려 한다"며 '실용적 한일관계' 구축 의 필요성을 역설했음. 전날 재일동포 리셉션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역사 속에서 마음 상한 일도 있었지만 과거 마음 상한 일을 갖고 미래를 살 수 없다. 과거는 잊을 수 없지만 과거만 갖고 오늘을, 미래를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대한 분명한 새 기준을 제시했음.
- 한일 간에 이런 공감대가 이뤄진 탓인지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을 자제했음. 다만 '제2기 한일역사 공동연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다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음.
- 양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고 전화로도 협의하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음.
- 이 대통령은 오는 7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 8개국) 정상회의때 제3차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등 국제 행사자리를 빌려 올해에만 일본 총리와 5~6차례의 셔틀외교성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 일종의 경제협력 협의체인 '한일 비즈니스 서미트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양국 재계간 실질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경제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기술이전을 포함,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내 '부품·소재전용공단' 설치를 검토하고 양국의 부품·소재산업 관련 기간사절단 파견 및 관련 전시상담회 개최를 추진키로 함.
-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일간 철저한 공조를 다짐하고, 특히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납치문제가 6자회담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 재확인함. '비핵·개

방 3000구상'을 설명하고, 후쿠다 총리의 지지를 이끌어 냄.

- 이밖에 환경, 에너지, 개발원조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상호협력하는 동시에 한·중·일 3국간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후쿠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금년 중 일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전폭 지지했음.

[참고자료 1] 한일정상 기자회견 李대통령 모두발언(4/21)

- 먼저 저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후쿠다 총리 각하와 일본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나는 취임 후에 여러 계기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공동의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양국이 서로를 위해서, 또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오늘 회담에서 후쿠다 총리와 나는 양국이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을 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상간에 셔틀 외교를 활성화하여 현안 사항들을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 정치인들의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도 서로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의 관계의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초석이 될, 양국 젊은 세대 간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
- 이의 일환으로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내년에 약 7천 200명의 젊은이가 일본을 방문하고 2012년까지는 1만명으로 확대하는 교류를 합의했고, 또한 대학원생 300명이 부품·소재 산업을 전문하는 분야에 와서 배우고 일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 바 있다. 이러한 대학생 교류, 여러 갈래의 사업 실시 등을 합의한 바 있다.
- 더욱이 2월25일 우리 구다상께서 저의 취임식 때 오셔서 만났을 때 논의됐던 재계 서미트 라운드 테이블을 의논한 바 있다.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양국의 재계 대표들이 모여서 이 모임을 확정 짓고 오늘 발표를 통해서 그 협의된 바를 양국 정상에게 보고를 하고 들었다. 저는 이 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8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2차 비즈니스 서미트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사업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두 사람은 양국 경제를 균형있게 확대하기 위해 부품·소재 산업 분야의 교류증대 방안도 검토했으며, 특히 정부간에, 중소기업 담당 기관간에 정책 대화도 하기로 해 양국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교류를 촉진하는데 대한 이야기도 했다. 또 상호 호의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 재개도 다시 실무 회의를 통해 하기로 서로 합의한 바 있다.
- 후쿠다 총리와 나는 과거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해 제2기 한일 역사 공동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나는 이번 회

담에서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측이 더욱 전향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우리 두 사람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핵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서로 의견을 나눴다.
- 후쿠다 총리는 '비핵·개방 3000구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했으며, 나는 '일·북한 평양선언'을 토대로 핵과 미사일, 납치문제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일·북 수교 교섭을 추진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기로 합의를 했다.
- 후쿠다 총리 말씀이 계셨지만 후쿠다 총리와 저는 환경, 에너지, 개발원조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7월에 열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G8(서방선진 8개국)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후쿠다 총리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 앞으로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서 모든 일을 적극 협력하고 논의할 수 있기로 했다.

[참고자료 2] 한일정상 기자회견 후쿠다 모두발언(4/21)

- 오늘 이명박 대통령을 맞이하여 셔틀 정상외교의 매우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다.
- 회담에서는 가장 소중한 이웃관계인 일·한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 일·한 양국이 국제사회의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감으로써 일·한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가야 할 일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 굳건한 일·한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한층 깊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금번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과 저는 특히 젊은이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워킹홀리데이 제도 확대 등에 합의했다.
- 일·한 경제관계가 한층 긴밀해 지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과 저는 일·한 FTA(자유무역협정), 일·한 EPA(경제연계협정)가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 오늘 회담과 함께 양국 대표적 기업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한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 테이블이 발족됐으며 조금 전 대통령과 함께 제1회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앞으로의 활동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
- 일·한 최대의 공통과제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했다.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조기에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일·한 양국 간, 나아가서는 일·

한·미 3국간에도 가일층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일·북 관계와 관련 저는 다시 한 번 납치, 핵, 미사일 등의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고자한다는 입장을 설명했으며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해 주셨다.
- 그 밖에도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에너지, 개발원조 등 국제사회에서의 과제에 대해서도 일·한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금년 하반기에는 본인이 한국을 방문한다. 그 외에도 G-8 도코 정상회의 등의 계기에 대통령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협력해 나감으로써 일·한 신(新)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참고자료 3] 北-시리아 '핵커넥션'…全文(4/25)

- 행정부 관리들이 의회 위원회들을 상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 브리핑 했음.
- 시리아 정권은 지난 2007년 9월 6일까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동부지역 사막에 비밀스럽게 건설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시리아의 비밀스런 핵활동에 협력한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지난해 9월 6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리아의) 원자로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다.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숨긴 원자로는 그러한(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시리아는 국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원자로 건설 사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설이 파괴된 이후에는 신속히 증거가 될 지역을 덮어버렸다. 이런 위장은 오로지 이 원자로가 평화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 우리는 IAEA에 이런 정보를 브리핑했으며 시리아 정권은 전 세계 앞에 나와 불법적인 핵활동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 시리아 정권은 테러를 지원하고, 레바논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활동을 해왔고 외국의 전투요원들이 이라크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자국민을 억압하고 있다. 시리아가 국제사회와 좀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면 이런 활동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 우리는 오랫동안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확산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가져왔다. 북한의 시리아와의 비밀스런 핵협력은 그런 활동을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이를 다루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또 북한이 추가적인 확산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행위와 다른 핵활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엄격한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다.

- 이 원자로 건설은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이 지역과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일이 비밀리에 그리고 평화적인 핵 활동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확인시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그 절차들을 위반하고 일어날 때 특별히 더 그렇다. 이번 사태는 동일한 정권이 확산을 지원하고, 테러리즘을 후원하고, 불안정을 조장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
- 이는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활동과 그런 활동이 중동의 안정에 던지는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갖는 게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활동에 대응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들부터 시작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국제사회가 이런 중대한 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이런 활동들을 종식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국제관계연구실 제공